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1강, 우상 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 고린도전서 8:1-11:1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고린도전서 8.1-11.1, 우상에게 제사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우리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사실 11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구절이 그것을 나누었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11장의 첫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질문과 많은
유대인의 영향과 배경을 가진 이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이러한
신들의 측면이 일상 생활의 일부인 철저히 이교도적인 다신교 문화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여행 가이드가
많이 있는데, 오늘 자료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를 언급하겠지만, 그들은
도시를 걷다 보면 다양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에게 바쳐진 특정 사원을
보게 되고, 그것은 그저 문화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음수대, 목욕탕,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중 목욕탕입니다. 그 그리스-로마 문화의 다신교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로 그리스도에게
온 이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은 그런 종류의 문화 속에서 사는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구 일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온 학생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문제가 싱가포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한 명은 싱가포르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사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가 아마도 그것을 포착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대부분, 특히 서양 문화가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 운동과 함께 종교적 다원주의를 다루는 방식 측면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 의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썄요, 어쨌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세부 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트북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트 번호 11이 될 것이고 8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양심의 개념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음식 희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노트 116페이지.

지금까지는 일종의 섹션 요약이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단위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그의 메시지의 권위, 분열과 경쟁의 문제, 그리고 그 장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사회적 지위를 다루었습니다.

5장과 6장은 성적 취향과 소송을 다루었고, 이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문화에서 등장하면서 문화와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7장은 주로 결혼과 성적 취향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강의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제국과 그리스도인의 일상 생활의 맥락에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룹니다. 우상에 대한 세계관은 바울 시대의

세계에 스며들었습니다. 수많은 신과 사원을 일상 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사람이 숨쉬는 공기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경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반복한 그림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젖었다고 느껴지나요? 아니요, 물고기는 젖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환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다원적 환경에서 존재했던 바로 그 신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7장, 로마서 14장과 15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읽어보면,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서 벌어진 투쟁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이런 분위기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삶, 자신들이 알고 있던 우상 숭배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을 버리고 일신교적 기독교, 유대교적 기독교 세계관을 채택해야 했는데, 이는 대부분에게 매우, 매우 급진적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브루스 윈터의 작업을 좋아합니다. 그는 당시의 로마적 측면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90년 틴데일 게시판 41권에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이 특정 장에서 진행되었던 배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또한 2세기 후반에 나온 좋은 출처를 지적하는데, 이는 1세기 코린트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그리스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파우사니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여행 안내서입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작가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직접 확인했고, 이 모든 텍스트를 표면화할 수 있고, 고린도와 다른 도시, 다른 로마 식민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개 중 일부에 대해 아직 얻지

못했다면 어땠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8:1에서 우리는 다시 죽음 주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NIV에서는 지금이라고만 말하지만, 그것은 죽음 직전의 사건입니다. 8:1과 10:14는 우리에게 몇 가지 흥미로운 종결 지점을 보여줍니다. 8:1은 지금 우상에게 음식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10:14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상 숭배에서도 망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장의 끝에 다다르지 않았지만,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 긴 구절 사이에 책갈피를 몇 개 볼 수 있습니다. 10:31에서 11:1까지의 결론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아무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노라.

내 모범을 따르세요. 이 섹션에서 11:1을 유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듯이 내 모범을 따르세요.

그 모방 아이디어는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좋아요, 8장부터 10장까지. 카이아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카이아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지금쯤은 텔버트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8장인 8:1~13의 음식에 대한 질문은 9장 24~11장 1절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데, 여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의 중앙 부분에서 복음을 위한 의식을 흔드는 것과 9장의 공동체에서의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끼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상에 대한 음식 희생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인 양식, 즉 음식과 성전의 연결과 관련하여 직면한 세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일반적인 분위기, 즉 우상을 의식하는 사회를 포함하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머피 오코너가 쓴 책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오래되었지만, 세인트 폴 코린트라는 책에는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의견 차이를 발견할 것이고, 이 장에서 특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그 중 일부를 강조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출처를 좋아하고 어떤 출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고, 거기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매우 광범위해야 합니다. 즉, 지역 사찰에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8장과 10장에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8:7에서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양심이 약해서 신에게 제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들은 이 희생 음식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사원들은 종종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결혼식을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은퇴 파티를 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열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는 사원의 일부에 있는 방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은 이러한 식사 공간을 여러 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신을 위한 연회에만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할 장소가 필요한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논란의 일부입니다. 머피 오코너는 이것을 식당과 사원 방으로 봅니다.

8장에서 바울이 소위 강하고 약한 문제에 대해 변화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장과 그 구절들, 1절과 그 이후의 구절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10장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성전과 관련된 음식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썬,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로 그것을 알아냈고, 이 지역 성전은 공동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없앨 것인가? 글썬, 사실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음식은 유대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코셔에 맞는 방식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글썬, 그리스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동물을 신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글썬,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들은 당신이 가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원과 연결된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빌려서 무언가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연회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관련하여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헌신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장이 덜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레스토랑이나 커뮤니티 룸이 있고, 10장은 신을 기리기 위해 실제로 모였을 때, 물론 순수한 우상 숭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완전히 알아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출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머피 오코너가 지역 사원에서 식사한 것은 1세기 사람들의 시민적, 사회적 삶이 우상 숭배 문화의 통합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원은 많은 사회적 행사가 열리는 커뮤니티 센터와 같았습니다. 결혼식과 생일과 같은 가족 행사 외에도 사원을 사회적 센터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무역 조합, 사도행전 19장, 심지어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사건과 사회적 사건의 어려운 문제는 종종 1세기 로마 세계에서 그런 구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일시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연관성에 대한 죄책감이 개입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언급할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봐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루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머피 오코너는 사교 행사를 위한 사원 식당을 언급했고, 윈터는 이 사원에서 일어난 제국 숭배 행사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제국의 숭배 행사는 또한 사회적 지위를 구분할 것입니다. 높은 계층과 엘리트 계층이 참석했고, 낮은 계층은 이러한 행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는 그 문화에서 그들이 호흡하는 공기의 일부였고, 모든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고위 인사가 마을에 오면 사원 중 하나에서 연회가 열리고, 높은 지위와 엘리트가 참석하여 그것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생 스스로 내린 선택인 것처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이걸 알아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주고받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고,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환이었고, 문화에서 지위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측면에서 그들이 처리해야 할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코린트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모두 언급하지 않을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로마 코린트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 숭배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학자들은 때때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의 제 연구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브루스 윈터와 그의 그룹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학자입니다. 그들은 고전 학자입니다. 그들은 성서 학자이며, 그들의 욕망은 이러한 텍스트들을 로마 식민지 환경에서 엄격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살아온 것. 그런 민감성이 별로 없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체리 따기라고 부르는 것을 취합니다. 그들은 정보의 조각조각을 가져다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논쟁하는 꽤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제국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것이고, 그 측면은 로마 시민에게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다원주의의 일부이며, 당신이 로마에 대한 존경심과 심지어 숭배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 다원주의를 고조시킵니다. 로마는 당신에게 세상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신을 의식하는 문화의 전체 포화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 그들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숭배는 1세기에 확실히 관련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린도와 특히 관련이 있는 두 번째 것은 고린도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제국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미 아라고 불리는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옮겼고 그 게임들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폴은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는 그의 길드였던 천막 만들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게임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였을까요? 폴은 천막을 세우고, 수리 작업을 하고, 그런 기반에서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게임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게임과 함께 대규모 연회가 열렸습니다.

부자들은 전체 문화에 대한 맥락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고,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존중해야 했고, 그것은 사업을 하는 일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권 내에서 더 높은 지위의 개인들이 살아남는 과정의 일부였고, 그 높은 지위의 개인들 중 일부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때때로 언급할 흥미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다원주의적이었지만, 알렉산더는 다른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들이 그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맥락을 만들었고, 그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상이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웠습니다. 글썄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려고 노력했고, 유대인들을 크게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빼앗았고,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1세기에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는 많은 역사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문제 중

하나는 로마 제국의 특정 중심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와 관련하여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이는 아마도 그것이 만연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 절반은 음식과 우상 숭배와의 관련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실제로 코셔 매대가 있었던 것 같고, 로마는 그것을 허용했고 그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유대인들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즉 로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로마가 코셔 음식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유대인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대를 없앤 시기에 일어났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때는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 코셔 시장에서 음식을 사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곤경에 빠졌을 것이고, 그런 다음 이 문제가 나중에 해결되었고 50년대 중반의 이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기서 역사적인 독서를 해야 할 겁니다. 윈터의 책, *After Paul Left Corinth*는 코셔 고기가 공급되고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인들의 관계를 아우르는데, 그것은 시장에서의 음식, 성전에서의 음식,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부 onks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식사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0장 23절에서 27절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것에 대해 나와 있고, 우리는 나중에 그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NIV에서 말했듯이 시장에서 고기를 살 수 있다고 말한 매우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저는 양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당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당신을 지켜보고 반대한다면, 당신은 다른 문제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 그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내용은 10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당신 앞에 차려진 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호스트가 요점을 말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걱정해서 요점을 말한다면, 글썄요, 알다시피, 저는 시장에서 이 고기를 샀고, 분명히 모든 고기는 그들이 정육점이라서 사원을 거쳐서 시장에서 팔았고, 그러면 당신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는 측면에서 당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흥미로운 텍스트인데, 우리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황제 숭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서기 54 년, 바울과 같은 시기에 로마 고린도에 이것이 세워졌고, 여러분이 표면화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의 일부였던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의 일부였고, 이 사람들은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기독교는 당시 유대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고기와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었고, 로마가 그것을 다루었고, 시장이 그것을 다루었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많은 활동과 사고방식이 구약성경 사고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물들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언약을 갈라놓지 마세요. 그것들은 합쳐져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유대교, 즉 우리는 그것을 제2성전 유대교라고 부르는데, 기원전 3세기, 3, 4세기부터 사도 시대까지를 말합니다.

제2성전 유대교, 많은 것들이 쓰여졌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우 중요한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체로 1세기 유대인 공동체의 조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들이, 특히 복음서와 다른 곳에서도, 구약을 인용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증명될 수

있고, 로버트 프랑스는 이것을 보여주는 데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에 대한 자료를 쓸 때 칠십인역이 일종의 핸드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출판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성경과 사용 가능한 히브리어를 인용하고 그리스어를 비교했을 때, 칠십인역은 종종 그들이 보고 있는 텍스트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가족이 성경으로 자랐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으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접하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도전은 아닙니다. 로마의 고린도를 이해하는 도전,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윤리로 전환하면서 겪었던 긴장과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 세계의 해석자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와서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입장은 여러분이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렌즈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해석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향곡처럼, 여러분은 한 가지를 듣고, 모두 같은 오케스트라이지만, 여러분은 그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을 듣고 있고, 그것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해석의 역할과 본질입니다. 우선, 제가 전통적인 학술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학술적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종종 전통적인 것이 나쁜 의미로 전통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 특정 견해는 학술 문헌에서 매우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웬델 윌리스는 1985년 스킨스 프레스에서 출판한 *I Don't Mee*

t in Corinth, The Pauline Argument in 1 Corinthians 8-10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매우 존경받는 학술 텍스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책이 나온 지 몇 년 후에 또 다른 기사를 썼고 25년 후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학술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타내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좋은 글입니다. 이 관점은 I Don't Meet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자신 의 견해를 놓고 고군분투하는 두 집단으로서 강자와 약자를 나타냅니다.

이제, 많은 문헌이 이 노선을 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에서 읽는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Winter와 그의 그룹과 같은 새로운 글을 가져올 때, 저는 Bruce Winter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많은 글을 썼고 고린도전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가 그를 전통적인 학술적 관점으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Winter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을 분석할 때, 그는 이 관점이나 다른 관점의 렌즈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의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표면화하고, 그것을 다루고, 용어를 살펴보고, 이 장에 관련된 모티프를 살펴보고, 그것을 로마 고린도와 바울의 가르침과 연결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윈터를 읽을 때, 당신은 그가 이 두 관점 중 하나의 렌즈를 그 텍스트에 씌우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 윈터는 이것에 대한 세 번째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두 관점, 전통적인 관점과 잠시 후에 언급할 또 다른 관점 모두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위 학자들을 상대할 때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렌즈를 만들고, 서신에서 일방적인 전화 대화로 특히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재구성합니다.

그게 제가 윈터의 문학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강의를 위해 정신을 차리면서, 저는 실제로 그의 저널 기사 4개와 After Paul Left Corinth의 여러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냈고, 고린도전서에 대한 해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호주에서 은퇴했지만, 그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니 이걸 딱딱하고 빠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점 면에서 엄격하고 빠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몇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Winter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텍스트를 그런 모드에 붓는 것을 무시할 때, 그는 텍스트가 그 자체의 조건으로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자와 약자는 세계관에 의해 구분됩니다. 약하다는 단어는 여러 번 사용되었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약자의 커뮤니티를 만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 전환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자는 올바른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자는 지식이 부족하여 양심에 얽매었습니다. 우리는 신과 음식과 사회적 접촉을 통한 사회 통합에 대한 부정확한 견해를 통해 양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그 시대와 공간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에서 성인과 직업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떤 종류의 전환이었는지 우리가 적절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구절의 유대적 측면에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와 바울을 다루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그들에게 같등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맥적으로 117페이지에서 중간 부분은 바울이 약자로부터 강자를 보호하거나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바울은 강자의 권리를 증진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문제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어난 주된 관점은 무엇이었는가? 문제가 사회적 지위에 싸여 있다면 후자일 수 있다. 엘리트는 자신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짓밟고,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엘리트가 이 맥락의 일부가 될 가능성과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다.

문제는 많은 오래된 성경 연구가 로마 식민지 지위 엘리트와 그들이 주장한 권리에 대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만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해와 해석의 진행의 본질 때문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적 학문에서도 이 구절의 배경이 구절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심지어 강함과 약함의 정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함과 약함은 세계관에 의해 구분됩니다.

다음은 이 특정 해석 모델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이며, Garland는 이를 공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Garland는 다른 관점을 따르는 듯하고, 저는 보통 이 문제에 2차 자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훌륭한 학자는 공정하고, 그는 공정하며, 그 책을 한 권만 사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편리한 곳입니다. 우선, 과거의 이해와 우상에 대한 연관성에 얽매인 약자는 새로운 세계관에 참여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없었으며, 저는 그것이 전통적인 학술적 관점을 공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강자가 기술적으로 옳다는 데 동의했지만, 강자가 약자를 파괴하지 않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짓밟지 마세요. 아마 그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를 끌어들이고 이스미아 게임 등과 관련하여 연회에 가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장에서 고기 한 조각을 사러 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세

번째 사항은 8장에서 우상과 관련된 음식을 무해하게 먹는 것과 10장에서 우상을 실제로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의 구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한 우상의 음식을 허용했고,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듣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할 모든 뉘앙스에 민감하지 않으며, 우리는 무언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다음 글머리 기호는 바울의 성숙함과 연합에 의한 죄책감을 무시하는 능력인데, 이는 초기 교회와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견해는 118페이지 상단에 있으며, 이 견해에는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우상과 동일시되는 모든 음식, 특히 특정 성전 행사에서 먹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저녁 식사는 포함되지 않는 그 신을 경배하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연회를 의미합니다.

둘째 ,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또한 커뮤니티 센터이며, 행사를 위해 임대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통역자들은 이 맥락에서 성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가 우상과 관련이 없는 한 말입니다. 셋째, 바울은 우상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닌 상황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지배적이지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세계관에서 전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둘 다 얻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동시에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역에서 당신의 회중에 모든 수준의 기독교적 이해가 표현되지 않는 시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숙하고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방금 들어와서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모든 짐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어린 시절에 Cub Scouts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Cub Scouts는 청년 조직이고, 그들은 대개 교회 홀 등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에 약간 관여했고, 친구들이 갔기 때문에 성경 학교를 방문했지만, 학교 생활 동안에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저는 그저 살았고 시끄러웠으며,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제한에서 벗어나 반항적인 청년으로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약 1년 후에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코네티컷 뉴런던에 있는 다음 근무지로 가는 길에 집에 들러서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학교에 가서 옛 여자친구를 찾았습니다. 제가 앉았는데, 아이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었고, 연사가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좋은 인디언과 나쁜 인디언으로 각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저에게는 현실이었고, 제 개종이었지만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전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코네티컷에 있는 다음 근무지로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갔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유언과 복음 요한 복음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특히 시끄러운 삼촌들이 있었어요. 저는 학교를 빠지고 인디애나 주 코너스빌에 있는 작은 공장 마을에 있는 삼촌들이 있는 Mecca와 Black Cat이라는 술집으로 가서 당구를 치곤 했어요. 삼촌들이 당구를 치는 걸 구경하면서 맥주도 한잔씩 마시곤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죠.

기독교인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맥락이 전혀 없었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다음 저는 새로운 기독교인이 되었고, 새로운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맥락을

얻었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독교인으로서 변화하는 행동 패턴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코네티컷 주 뉴런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독교 군인 센터로 알려진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민간 기지에서 군 과 함께 전도와 교육을 하려는 단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

그들은 당신이 갈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돈이 많지 않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고, 주말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숙사와 같은 침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장소 중 하나에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라고 들었고, 그들은 제 기독교 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썬요, 저는 코네티컷 주 뉴런던의 도심으로 갔고, 군인 센터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구공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구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 테이블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매우, 매우 뚜렷한 소리라는 걸 알 것입니다.

글썬요, 제가 멈췄던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당구장이 메카의 블랙캣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곳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을 뒤로 물러나서 제가 올바른 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에 있는 표지판을 확인했고, 실제로 제가 올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을 올라갔고, 친절한 사람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레모네이드나 아이스티나 무언가를 권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보았고, 당구대 두 개가 있는 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의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바는 수영장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쁜 맥락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작은 시골 공장 마을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처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놀자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당구를 치는 제 맥락에서 그들의 맥락으로 제 마음 속에서 전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 저는 제 자신에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당구를 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를 읽는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약했습니다. 저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맥락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초보였고, 솔직히 말해서, 큐 스틱을 집어 들고 당구를 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까지 오랜 시간, 몇 달, 심지어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제 가치 체계에서는 그것이 나쁘고, 저는 스스로를 교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그 교육을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방해받지 않기 전에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글썄요, 이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알고 받아들인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여전히 도전받고 있는 로마 법정에서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충성을 위해 이전 사원에서 그들에게 부름을 받은 도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전 공동체는 이제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심지어 그들을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보호할 지위가 없는 하층 계층이 그렇습니다 .

그들에게 그 전환은 어땠을까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좋아요, 전통적인 관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읽은 것처럼 바라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 대부분 사람들이 표면적인 독서를 하지만, 그것이 표면적인 독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그 관점을 확립해야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립했지만, 저는 그것이 마지막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대응, 반대, 그리고 대조적으로, 최근에 대안적인 학술적 관점이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인 표면적 독해 관점에서, 즉 텍스트가 연관성을 통해 특정 죄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관점이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며 텍스트의 세부 사항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두 관점 모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강자와 약자를 다루고 강자를 법적으로 편들고 약자를 기능적으로 보호하는 전통적인 관점인지 아니면 바울이 그 모든 구별 없이 이상 숭배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는지입니다. 글쎄요, 전통적인 관점은 그렇게 말했지만 전통적인 관점은 즉시 이상 숭배가 아닐 수 있는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지만 대안적 관점에서는 모두 이상 숭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라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합니다. 텍스트의 세부 내용은 어떤 면에서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텍스트를 읽는 렌즈는 다를 것입니다.

Heard, Gooch, 그리고 제 생각에 Garland는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이러한 대체 학술적 관점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Garland는 이에 대한 기사 173 페이지에서 바울이 이상 숭배와 공개적으로 관련된 음식과 어떤 연관도 맺는 것을 기독교인에게 금지했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상 숭배를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레스토랑일지라도 사원에서 식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상 잔치에서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트가 그러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사원 시스템을 거친 고기를 살 수 없으므로, 그것은 전면적인 거부이고 그 측면에서 더 많은 논란입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견해는 8에서 10까지 문학적 수사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더 문학적인 비판적 절차에 의해 자극을 받았으며, 하나의 전제로 전체 맥락을 설명합니다.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견해에서 8장은 덜 위협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순수한 이상 숭배 환경을 다루고, 8장과 10장을 읽으면 두 가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전통적인 관점이 그것을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그것은 평평하며, 당신이 그들의 문헌을 읽을 때 그들은 그 관점에서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숙제를 하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표면화하고 읽으면, 당신도 뭔가 변화를 느낄 거라는 걸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작가 한 명을 읽으면, 그게 바로 그 견해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다른 작가를 읽으면, 오, 이게 바로 그 견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양쪽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읽은 다음 중재 설명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원터가 전반적으로 견해를 강요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진실은 극단에서 발견되지 않고 공통적인 측면과 두 극단의 진실을 중심으로 가져오는 새로운 관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좋습니다. 바울은 결코 우상과 관련된 죄책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은 바울이 주장을 세울 때 더 가정적인 구성물입니다.

그들은 약자를 역사적 현실이 아닌 문학적 구성물로 봅니다. 저는 그것에 문제가 있지만, 이 관점은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문학적, 수사적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는 매우 높은 학문적 관점이며, 그러한 패러다임은 많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저는 고린도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강자와 약자를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갑자기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가 계속 말하듯이, 약자는 바울이 수사적 주장을 세우기 위해 만든 가설적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이 견해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괜찮지 않고 저기서도 괜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의 주요 차이점은 우상 고기에 대한 배경 질문의 재구성과 고린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충돌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견해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존 허드는 *The Origin of First Corinthians*라는 책을 썼으며, 그는 전통적인 구성에 도전하여 고린도에는 우상 고기에 대한 견해가 실제로 하나뿐이며 바울의 견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울은 우상 고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드가 말했듯이, 119장 하단에서 고린도인들은 우상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말하는 고린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것을 어떻게 프레임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고린도인들이 말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우상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업과 연회에 참석할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엘리트 사회 계층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바울은 그것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관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신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것이 그가 고린도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고, 음식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이 음식은 위장을 위한 것이고 위장은 음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고기를 피함으로써 무엇을 얻는지 보지 못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의 진술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고기의 역사를 물어봐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고기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회에 초대하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재건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바울이 아니라고, 절대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나쁘지 않은 재구성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조차도 이것을 읽고, 글썸,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관점, 대안적 관점이 약한 강함의 역사적 현실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수사적으로 보는 문학적 수사학적 모델로 가는 곳입니다. 바울은 토론을 설정하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절정이고 8장은 그가 10장에서 돌아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경이 있고, 이것을 읽는 방식에 색을 입히는 관점이 있습니다. 허트의 주장은 고린도인들의 반대가 고린도의 단일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바울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이죠.

약하거나 스캔들 당한 2당은 없었습니다. Garland가 요약했듯이, Hurd, 고린도인들은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냐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자료를 많이 읽었고, 어쩌면 저는 이 해설자들 중 일부만큼 전문가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폴이 대답하는데, 그는 법의학적 수준보다 커뮤니티 수준에서 더 많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장난을 좀 했습니다.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먹을 수 없나요? 왜냐하면 우상이 있는 상황에서 먹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참여입니다. 친구 집에서 식사하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참여가 아니지만, 질문이 나오면 그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전통적인 학술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전통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윈터의 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의 세부 사항에 대한 로마 설명에 의한 전통적인 학술적 조건입니다.

대체 관점의 교리.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읽을 Garland가 없다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 119. 종교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를 양분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읽혀집니다. 글썄요, 아마 사실일 테지만, 무슨 뜻일까요? 1세기의 사고방식은 삶의 범주를 구분하지 않았습시다.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삶을 구분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전통적인 학문적 관점이 구획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질문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연루에 의한 죄책감의 정당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교 사원에서 식사를 하면 그 기관에 대한 우상 숭배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그것이 연루에 의한 절대적인 죄책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대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바울의 견해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시다. 솔직히 저는 대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야기할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견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글썄요, 전통적인 견해는 기본적으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의 뉘앙스로 그것을 그렇게 읽습시다. 여기에는 사원 식사, 친구 집에서 식사, 정육점이 포함되었지만, 저는 대안적인 견해를 충분히 읽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친구 집에 있으면서 질문을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모르겠습시다.

고기 시장에 있으면서 질문을 하지 않는 문제. 본문에서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의 노골적인 수확을 용납할 만큼 불의하지 않았습다.

솔직히 말해서, 전통적인 관점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관점의 문제점은 둘 다 정확성의 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묘사할 수 있는 특정한 관점이 있지만, 둘 다 이 텍스트에서 타당한 요점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학계에서 실제로 발전하지 않은 이것의 종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견해는 강자와 약자라는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반박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약자를 없앨까요?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문학적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약자는 토론에서 설정입니다.

글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대화자를 설정하는데, 특히 로마서에서 그렇죠. 하지만 대화자 뒤에는 어떤 현실이 있어요. 약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뒤에는 어떤 현실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전환기에 있는 실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종류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제 상황에 대한 제 예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식민지 고린도 새 그리스도인들의 예화에서 삶에서 드러나는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점은 역사적으로 약한 존재의 존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더 단일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마도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겁니다. 이제 이 워크시트. 저는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업에 있을 때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으니, 여러분은 스스로 숙제를 하고 그 블록을 채우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이 두 관점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견해를 상당히 잘, 바라건대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견해의 이 차이가 주로 약함은 바울이 사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문학적

구성물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역사적 맥락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이며, 그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 저를 억제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그런 성격의 문학적 재구성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특정 맥락이 그것에 맞는지 확신할 수 없을 뿐이며, 솔직히 말해서 윈터와 그의 길드가 로마 재구성의 관점에서 더 많은 것을 읽었는데, 그것은 이것을 제기하지 않고 그것을 살피우게 하고, 엘리트와 비엘리트, 그리고 이러한 전환의 범주에 약함과 강함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을 어떻게 확실히 할지에 대한 해석의 역사에서 우리가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요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우리가 보는 유일한 렌즈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 텍스트를 통해 작업하고, 그저 우리의 독서에 맥락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자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중심적 접근 방식을 원합니다. 즉,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되짚어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그 세부 사항이 우리 앞에 있는 본문에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표면적 독해는 이 특정 구절에 대한 어렵고 위험한 독해이며,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 그렇습니다. 서신 문학에서 재구성은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서신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텍스트 자체로 들어가서 이 텍스트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살펴볼 때 일종의 전통적인 개요를 사용하는데, 그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에 약간 기울어지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는지 지금 묻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규범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어땠는지에 대한 재구성을 무시하는 규범적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문제, 사도행전 8장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인 1~13장은 여러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Garland를 인용했고, 그것은 분명히 대안적인 견해를 촉진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읽고 우리가 이 두 견해를 이분화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면화되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번 주의 문제는 역사적 또는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재구성에서 맥락을 읽고 있고, 여기서 그것에 대해 조금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페이지에서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텍스트로만 하고 싶었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독해, 학술적 독해는 여기서 소위 전통적인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이라는 단어를 함께 넣은 이유는 때때로 전통적인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선이나 수정에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로 너무 빨리 달려갔고, 그래서 제가 따옴표로 묶은 이유는 때때로 그것이 서구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지, 1세기의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권리라는 단어와 엘리트와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10장 8~10절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본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을 표면화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양의 자유 개념을 여기에 너무 많이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우상 숭배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두 견해 모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9:24에서 10:22까지, 바울은 오만한 지식과 과시적인 참여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것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강함도 문학적 조작일 뿐인가? 10:23에서 11:1까지, 바울은 형제를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자유로 형제를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훑어볼 때, 진정한 음양이 있습니다.

8:1에서 이 문제를 소개할 때, 우리는 모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식, 저는 바울이 강력히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진실을 아는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성과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둘을 하나로 모으고, 그저 두 갈래로 나누지 않고, 옳은 사람이 여기 서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두는 것일까요? 그러니 사랑은 그 격차를 메웁니다.

사랑은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사랑은 옳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구약성서의 언약 용어입니다. 당신은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당신의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양의 사상과 현대의 사상이 사랑이라는 용어에 강요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오해받는 용어입니다.

사랑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언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지식은 고린도전서 4장과 5장, 그리고 지금은 8장 1절의 맥락에서 부풀어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을 버린다는 말인가? 우리는 안다. 바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한다.

좋은 의미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압도하게 해서 안 됩니다. 지식은 부풀어 오르고 사랑은 쌓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사랑의 분기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듯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회중에게 말할 때마다 전체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착한 사람들과 그것을 이해하려고 방금 시작한 사람들은 제거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 회중에서 불연속성으로 보는 것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역 리더로서 당신은 구원과 함께 그 연속선의 양쪽 끝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자를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하십시오. 지식이 없는 사람을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전환 과정을 거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이 바로 로마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연속체의 양쪽 끝에 있는 아기와 목욕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버리고 사랑을 증진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지식을 증진시키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문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화나게 하는 문제들을 피함으로써 통합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에 사랑을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까요? 글썄요, 다른 견해는, 글썄요, 관련성이 없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15장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많은 전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여러분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다른 공동체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동체의 이익, 사랑을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지식이 괴롭힘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삶의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다루는 인간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은 세계관의 충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채택하고 그것에 안전한 사람들과,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2C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소개하는 처음 몇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실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어떤 사람들은 아직 완전한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공동체의 연속체는 8장부터 10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 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는 지식이 부풀어 오른다고 말했지만, 그는 바로 돌아와서, 알죠. 글썄요, 그는 스스로 모순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1~4의 서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 아기와 목욕물을 함께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ですよ. 커뮤니티가 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정면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면으로 나서서 정확한 세계관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코린트와 아테네의 모든 장식품은 너무나 통합되어 있고 로마의 구조의 일부이며, 그리스-로마 문화와 로마 식민지의 구조의 일부이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적으로 우상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1세기의 기존 자료를 읽어보면, 사원에서 치유를 주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쉬운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사람을 위해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그런 식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근거에 근거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신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의 기본 도식이다. 신명기 6:4의 고백의 개념은 신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이다.

일신교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특정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한 분의 신이시며, 그는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늘이든 땅이든 소위 신들이 있고, 작은 글자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의 문화에서 인정받는 작은 신들과 작은 영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세계관에 있어서, 오직 한 분의 신,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가 그를 위해 사는 아버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데,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나왔고 우리가 그를 통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 언급되지 않은 건 흥미롭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격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는 우리가 성경으로 되돌려놓은 신학적 구성물입니다.

정확합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것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을 텐데,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신교가 지배한다. 한 분의 신, 세 인격.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공동체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낸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여기 4~6절과 7~8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낚아챌 수 있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는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시간이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이전 맥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들은 그것과 씨름하다가 나중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신에게

제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하지만 음식은 우리를 신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4절에서 8절까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바울이 설명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전통적인 종류의 개요입니다.

왜곡된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독교인들은 유대-기독교적 이해의 배후에 있는 존재론과 인식론을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다원주의, 우상 숭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환을 할 수 없었습니다. 8.6에는 바울의 네 가지 명백한 일신교 텍스트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그것들을 나열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신교. Winter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그의 글에서 4~6명까지 성전에서 식사하는 것이 괜찮은 기독교적 이유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은 신조적 사상, 즉 여러분이 아는 것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틀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어떻게 포렌식 측면, 우상이 없다는 존재론, 기능적 측면을 통해 작업했는지 풀어내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맥락에 들어가거나, 그들이 멘토인 당신을 볼 때, 그들은 죄책감과 혼란의 기미를 느끼고, 당신은 그것을 다루고 처리해야 합니다.

왜곡된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여전히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한된 지각적 집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내 칠판이 필요합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 노트에는 차트가 없습니다. 스틱맨을 그리겠습니다.

아시죠, 당신은 머리와 막대기, 다리, 팔을 예로 들었죠. 그리고 당신은 왼쪽이고, 저는 오른쪽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데이터는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마음을 심장으로 그리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마음, 즉 정신으로 들어와 반대편으로 나오고, 의미가 부여됩니다. 좋아요. 만약 당신이 유대교나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코린트인이고, 그것을 지지한 적이 없고, 심지어 그것을 거부한다면, 데이터는 종교적 다원주의에서 들어와 반대편으로 의미로 나옵니다.

제 말은, 이 신들이 무언가이며, 저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신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제 문화입니다.

그게 제 종교예요. 하지만 갑자기 유대-기독교 전통에 편입되었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신교가 있고, 신은 한 분뿐이에요.

로마서 12장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교적 다원주의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흐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반대편에서 드러납니다.

왜? 당신이 세계관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형되었고, 그것은 당신이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종교적 다원주의 대신, 당신은 이제 유대-기독교적 일신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당신이 데이터를 실행하는 세계관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다시피, 의미는 어디에 부여되는 걸까요? 인간의 차원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서 부여되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성, 개인의 세계관입니다. 모두 세계관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1과 2가 그렇게 방대한 텍스트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단위로서, 그 진행에 따라, 구약의 관점에서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는 게 낫겠어요, 거기에는 필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이 다루는 거예요. 그는 다른 세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각적 집합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곳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리드, 데이터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우리가 지각적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각적 집합이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우상이 공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우상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신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이 책은 세계관에 대한 흥미로운 책인데, 바알,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종교적 다원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바알이 나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설명됩니다.

우상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은 왜곡된 형이상학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제한된 지각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사고방식에서 변형되고 새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지식이 당신의 반영된 삶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미래를 위해 여기에 메모를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쪽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고, 잠시 후에 언급할 다른 세부 사항도 있지만, 연속성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 13절까지 원리의 적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4절에서 8절까지 세계관을 다루고, 이제 9절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진실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제 그는 돌아와서 그들에게 사랑을 줄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은 함께합니다. 그것들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식은 삶의 법의학적 측면, 즉 진실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지배하고, 사랑은 그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 기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절. 하지만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하지만, 당신의 권리 행사가 약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대안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구성물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실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절에서 먹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을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약한 형제나 자매는 당신이 그들에게 이해의 전환을 위한 시간을 줄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파괴됩니다. 여기서 말할 것이 더 많지만, 우리는 멈추고 121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를 다룰 적절한 시점에 있습니다. 적어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대안적인 관점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Gary Mead

ors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1, 고린도전서 8.1-11.1,

I do1s 에게 제사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